9일 Market Index
코스피 5018.85 (-40.84)
코스닥 638.97 (-5.30)
금리(국고채 3년) 3.639 (+0.026)
환율(원·달러) 1347.1 (-9.5)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10일 화요일

하나금융그룹

"공장건설 급물살… 민간투자 물꼬 터 전력기반 길 열어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과제

삼성·SK 예상 전력수요 총 15GW
송전망 확충, 공장 일정과 연계 관건
한전 연계 LNG발전소 건설 추진
민간발전 투자예측 가능성 높여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빨라지면서 전력 공급 기반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송전망 확충과 인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기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 투자 유인과 전력거래 제도개선 등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8일 산업계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에 대응해 용인 클러스터 4기 공장 첫 클린룸 완공 목표를 2045년에서 2033년으로 12년 앞당겼다. 1기 공장은 2027년 2월 첫 클린룸을 개방하고, 2기 공장은 같은 해 7월 착공해 2029년 6월 개방할 계획이다.

용인 클러스터의 예상 전력 수요는 삼성전자 국가산단 9기가와트(GW), SK하이닉스 일반산단 6GW 등 총 15GW로, 양사는 한전과 각각 6GW씩 총 12GW의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 신안성~동용인 송전선로 준공으로 SK하이닉스 1·2기 공장용 초기 전력 2.83GW 공급 기반은 확보했지만, 3·4기 공장 추가 전력은 2031~2032년 예정된 후속 송전망 확충에 달려 있어 공장 가동 일정과의 연계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장거리 송전망 확충과 수요지 인근 발전시설 확보를 병행하는 전력공급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공장이나 클러스터 인근에 발전시설을 두는 방식은 송·배전상의 문제가 매우 적다"고 말했다.

한전은 삼성전자 국가산단에 LNG 발전소를 우선 건설하고 송전망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한전 계획안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서부발전이 각각 1기가와트(GW)씩 총 3GW의 청정수소 혼소 가능 LNG 발전소를 내년 12월 착공할 예정이다. 2030~2038년 1단계 전력을 공급한 뒤 북천안~용인 송전선로 연결과 변전소 계통 보강을 추진한다.

SK하이닉스 산단에서는 SK이노베이션 E&S와 한국중부발전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1050메가와트(MW) 규모의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위한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자 선정 등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민간 발전사업자의 신규 투자에는 안정적인 수요와 투자비 회수 가능성이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인천 LNG 복합발전소를 운영하고 광양 LNG터미널 9~12호기 저장탱크 부지를 확보한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민간 사업자들도 신규 발전소 건설에 신중한 입장이다.

민간 발전업계는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LNG 전력거래 다변화를 촉구한다. 현재 LNG 발전사는 생산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수요기업은 한전에서 공급받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이 허용되면 발전사는 장기 판로를 확보하고 수요기업은 전기요금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상 직접 PPA는 재생에너지만 허용돼 LNG 발전은 제외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1~2032년 신규 LNG 열병합발전 필요물량 1.3GW에 용량시장 경쟁입찰 방식이 도입되면서 사업 진입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정부의 전향적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이재명 대통령 '소방대원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세종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소방대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배민·쿠팡이츠 과징금 6319억 '역대 최대'

공정위 "최혜대우 요구, 담합과 비슷"
시정명령과 각각 3311억·3008억
양사 "위법성 없다" 법적대응 시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요구하는 등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에 배달앱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3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양사가 동시에 '최혜대우'를 요구한 행위가 담합과 비슷한 경쟁 제한 효과를 낳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양사는 "위법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9일 배민과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약 3311억 원, 30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 양사의 합산 시장 점유율은 92.89%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점업체에 메뉴 가격, 할인 혜택 등 6가지 조건의 최혜대우를 요구하며 불응 시 '와우매장'에서 배제했다. 배민 역시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체배달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하고, 불응 시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했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브리핑에서 "시장지배적 1·2위 사업자가 동시에 최혜대우를 요구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최초 사례로 보인다"며 "담합과 비슷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배민에는 ▲자체배달 전환 강제(과징금 약 1554억 원)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과징금 약 154억 원)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가게배달의 앱 화면 노출을 줄이고 울트라콜(정액제)을 폐지하는 등 자체배달 전환을 강제해 입점업체의 선택권을 제약했다는 판단이다. 쿠팡에 대해서는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을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던 약관의 시정이 명령됐다.

이같은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양사는 즉각 반박 입장을 내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으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30년 만에 최대 외식 물가 상승률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위법'으로 단정했다"며, 소비자도 점주도 원했던 상생 정책이었다고 강조했다. 쿠팡이츠는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소명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삼성-현대차, 미래 첨단산업 '원팀' 구축

경영진 초청 '감사의날' 행사
"현대 비전, 삼성 기술력 만나
새로운 가치·가능성 열길 기대"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모빌리티를 비롯한 첨단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기존 전기차 배터리와 차량용 반도체, 전장부품 중심의 협력을 로보틱스와 에너지 등 미래 산업으로 넓히고 양 그룹의 기술 역량을 결집하는 '원팀' 체제를 모색한다.

삼성은 9일 삼성전자 서천연수원에서 현대차그룹 주요 경영진을 초청해 'HMG Appreciation Day'를 개최했다. '미래를 향한 One Harmony'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과 서강현 현대차그룹 기획조정담당 사장, 만프레드 하러 현대차·기아 R&D본부장 사장 등 현대차그룹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삼성에서는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 사장, 박용인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장 사장, 최주선 삼성SDI 사장 등 계열사 경영진이 함께했다. 양 그룹 경영진과 임원, 배우자 등 총 177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양사의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현대차그룹의 혁신적인 비전과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아우르는 삼성그룹의 기술력이 만나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도 "전장과 오디오, 배터리 등 차량 부품 분야를 넘어 로봇과 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서도 협력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은 행사장에 미래 모빌리티 관련 핵심 기술을 전시했다. 삼성전자 DS부문은 차량용 반도체를, 삼성SDI는 전고체 배터리와 배터리 셀팩 기술을 소개했다. 삼성전기는 자율주행용 카메라 모듈과 차량용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등 전장부품 솔루션을 선보였으며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하만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통합제어장치(CCU), 통신제어장치(TCU) 등 전장 솔루션을 전시했다. 완성차의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환에 필요한 기술을 한자리에 모은 것이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메트로경제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오늘 오후 2시~5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211호

메트로 한줄뉴스



▲강신철,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 만나 통합 논의…"사관학교 없앨 수 없어" /사진 뉴시스

▲尹·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상고심 배당…주심에 김성수 대법관

▲통일부 "北 김성남 방중, 中 5중전회 결과 공유 및 고위급 소통"

▲노동부, 동희오토·하청 3곳 압수수색…'노조 탈퇴 강요' 혐의

▲전국 학교 비정규직 27일 총파업 예고…"임금 차별 해소"

▲경찰 "공군 1호기 정보 유출 경위 규명 중"…국제공조·관련자 조사